

##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성서신학: 선교와 교회개척: 성경적 본질과 역사적 관점에서

### The mission and church planting: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the biblical essence and historical reality

위의 주제를 4 가지 관점(4 Perspectives): 성서적(Biblical), 역사적(Historical), 문화적(Cultural) 그리고 전략적(Strategic) 관점에서 종합하면 더욱 포괄적이 되지만 여기서는 **킵른 국제교회(다민족, 한인교회)** 용으로써 오직 **성서적 관점**만 종합한다. 나승필목사 (신약학&선교학 박사)

#### A. 성경적 관점(Biblical Perspective)

##### 1. 선교의 근원

이미 신약과 예수님의 지상명령 훨씬 이전에 세계선교는 하나님의로 부터 아브라함을 향에 주신 약속처럼 계획되고 준비되었다. 예루살렘의 사도회의 중 야고보 역시 동일한 선교관을 갖고 바울의 이방선교를 동의했으며 베드로 또한 고넬료의 가족의 선교를 통해서 깨달은 구약적 선교관을 지지했다(행15).<sup>1</sup> 이방 지역에서 장기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개척의 선구자적 역할을 감당했던 바울사도와 그의 동료들은 한 번도 그 들의 세계선교적 사명을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인용하며 진행한 적이 없다. 그 중 한 예로써 바울은 선교여행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사행13:46-47)와 그의 서신서(예,갈3:8)에서 대체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진행해 오신 선교적 약속인 구약(이 49:6)에 그 근거를 두었다.<sup>2</sup>

선교의 근원과 관련하여 카일텔리취박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인간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할 때 이는 정당한 구속사적 시각이라 할수있다.<sup>3</sup> R. Schultz 박사도 G.W. Peters 인용하면서 구약은 전체가 선교서이며 이스라엘은 선교민족이라고 한다. Schultz 박사는 이 경우 이스라엘을 반듯이 열방들에게 '보냄'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신약적 선교를 위한 구속사의 근본이라는 점에서라고 정의한다.<sup>4</sup>

이와 같은 사실은 사도시대와 오늘날의 선교는 그리스도 이 후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준비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보여준다.<sup>5</sup> 예수님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켜 "내 집은 만민(all Nations)이 기도하는 집"(막 11:17)이라고 명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선교적 계획이며 약속인 이사야서 56:7 를 유대인들에게 인용하셨다. 이와 같은 동일한 관점에서 주님은 마가복음 16:15 처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이로써 주님은 유대인들의

<sup>1</sup> Thomas Schirrmacher. 'Der Römerbrief als Charta der Weltmission', *Weltmission. Herz des christlichen Glaubens. edition afem-mission scripts 18. Beiträge aus Evangelikale Missiologie.* (VKW: Bonn, 2001), 20-32. Thesis Nr. 11-15.

<sup>2</sup> Ibid.; Ralph D. Winter, *The Long Look, Eras of Missions History,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Edited by Ralph D. Winter, Steven C. Hawthorne,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81), 167f.

<sup>3</sup> Carl F. Keil und Franz Delitzsch. *Genesis und Exodus. Biblischer Kommentar über das Alte Testament. Bd. 1.* (Dörffling CD Franke: Leipzig, 1878<sup>3</sup>), 78.

<sup>4</sup> Richard L. Schultz, (eds.) H. Kasdorf/ F. Walldorf, *Und sie verkünden meine Herrlichkeit unter den Nationen. Werdet meine Zeugen. Weltmission im Horizont von Theologie und Geschichte.* hänsler: (Neuhausen, Stuttgart, 1996), 33.35.

<sup>5</sup> Thomas Schirrmacher, 'Der Römerbrief als Charta der Weltmission', a.a.O., 20-32.

이스라엘에 한정된 축복과 구원사상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계획에 의한 선교관이 아님을 밝히셨던 것이다.

R. Winter 박사 역시 아브라함 이후 세계선교는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하는 주장을 "동면 이론"(The Theory of the Hibernating Mandate)라는 인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sup>6</sup> Winter 박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열방의 모든 민족 선교와 관련하여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은 창세기의 후반부인 12 장 1-3 절의 지상대명령에 관해 오늘날 일반 기독교인들이 갖는 의식보다 약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구약성경에 나타난 세계선교적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밝히고 있다(창 12:1-3, 18:18, 22:18, 28:24 출 19:4-6, 신 28:10 역대하 6:33, 시 67: 96, 105, 이 40:5, 42:4, 49:6, 56:3, 6-8, 엠 12:14-17, 스바냐 2:11, 말 1:11 등).<sup>7</sup>

이 단락에서 초기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전 우주적 구속과과 선교관(Die universalistische Heilserwartung im Judentum)에 관해 검토하는 것이 구약과 관련된 초기 유대 랍비들의 세계선교사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리라 생각하여 몇 가지 전통적 문헌을 살피고자 한다.

이스라엘과 초기 유대전통의 인류를 향한 우주적 신앙관(Die universale Dimension des israelischen Glaubens und des Judentums)이 초기 유대문헌인 마카베어상 1:11-15<sup>8</sup> 그리고 에녹의 묵시록등에 언급되어 있다. 에녹의 묵시록에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과 동일시 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사항이다.<sup>9</sup> 특히 주전 2 세기경에 있었던 십이족장의 유언(Testaments of the Twelve Patriarchs)은 우주적 시야로 구속사를 보는 유대교 선교관이 내포되어 있다(Test Lev 18:9, Test Judit 24:5f., Test Naph 8:3-4, Test Ass 7:2-3, Test Benj 9:2, 10:6-11).<sup>10</sup> 즉 이와 같은 우주적 세계선교의 견해가 사실상 초기 구약적 유대교의 시각이지 신약적 선교관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이 아니라고 Schnabel 박사는 유대 전문학자 Jacob Jervell 의 연구를 통해 주장한다.<sup>11</sup>

대다수 랍비들은 일곱 Noahide 의 계명 (seven Noahide commandments)을 준수하는 특정한 이방인들의 내세의 참여를 주장했고(bSanh 105a), 이경우 그들은 이사야 49:6 을 이방인들에게 토라를 전함으로 그들을 우상숭배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자신들의 사명으로 이해했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할라카의 미드라شم(Halachischen Midraschim)에서는 토라는 로마 제국어로도 계시가 되었다고 전했다(SifDeV 343). 랍비 Yishmael 는 토라는 이슬라엘 전용물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막의 시내산에서 모든 민족을 위해 주셨으니(민 18: 20 대한 Yishmael in SifBam119 주석참조)<sup>13</sup>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이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출애굽기 19: 2 절에 관한 Mekh Y, Bahodesch 1 주석참조).

<sup>6</sup> Ralph D. Winter, a.a.O., 168.

<sup>7</sup> Ibid.

<sup>8</sup> Schnabel, Eckhard J., *Die Urchristliche Mission*. (Wuppertal: R. Brockhaus, 2002), 97-98.

<sup>9</sup> Ibid., 99-100.

<sup>10</sup> Ibid., 100. Nr. 31.

<sup>11</sup> Ibid., 100. Nr. 33.

<sup>12</sup> John T. Pawlikowski. *Judentum und Christentum*, TRE 17. (Berlin: New York, 1988).

<sup>13</sup> Marc Hirshman. *Rabbinic Universalism in the Second and Third Centuries*, HThR 93. 103.

또 하나 여기서 첨부하여 참조 할 유대교 랍비 사상 중의 하나는 숫자 70 에 관한 역사적 전통적이다. 이를 연구해 보면 앞서 말한 우주적 구속사관이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에게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창 10 장과 역상 1:1-2:2 에서 노아의 후손 으로 인해 번성된 종족이 70 (또는 72)가 된다. 창 46:27 과 출 1:5 그리고 신 10:22 에서 야곱의 후손이 70 이었으며 모세를 도왔던 각지파의 장로가 70 이었다. 그리고 사도시대 유대인 공의회 회원이 70 이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유대인 문헌과 전통에서는 70 또는 72 를 열방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해 하곤 했다.<sup>14</sup> 이 전통 중 하나인 학가다(Haggada, 2 세기경)전통에 따르면 시내산의 율법 계시를 세계 70 언어(세계민족 대표/Represent)로 주셨다는 주장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다. 한 랍비문헌(Tanch, toledot' 32b)에는 숫자 70 과 관련하여 세계민족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70 의 여우(열방민족)아래 있는 이스라엘(12 양)이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는 크시도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돌보시며 그의 앞에서 여우를 멸하시리로다"<sup>15</sup> (마 10,16 '목자사상' 참조).

바울도 이와 같은 열방의 개념인 70 의 유대 전통적인 시각으로 로마서 11:25 에서 '민족들'(Nations)을 이해했으리라고 John Scott 은 그의 유대 고대사 연구를 통해 주장한다.<sup>16</sup> 예수님의 제자들 선교 파송에는 12 제자(마 10)와 70 인 제자(눅 10:1-20)로 구분된다. 이 독특한 상황에 관련하여 L. Goppelt 박사는 누가의 성경 기록시 70 인 파송이 예수님의 전 세계민족을 상징하는 70 과 연류될 가능성 크다고 주장한다.<sup>17</sup>

그러나 소수에 해당하는 랍비들중 Eliezer ben Hyrkanus 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참여를 부인했고 어떤 랍비들은 유대교로 온전히 개종한 이방인 프로셀리트들도 이스라엘과 함께 종말에 참여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bJeb 24b[Bar], bAZ 3b).<sup>18</sup>

상기와 같이 전반적인 검토에서 밝혀진 것처럼 비유대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선교가 유대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행해진 사역은 아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유대교의 문헌들이 그들의 우주적 선교관과 구속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합하여 볼 때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으시는 선교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었으며, 아들을 통해 완성하신 구원의 전파가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성령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확인시키시는 선교는 이런 관점에서 어김없이 하나님선교(Missio Dei)인 것이다.<sup>19</sup> 실로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로써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셔서 하나님나라를 세우시기 위한(이 52:10-54:17) 진정한 '하나님의선교'(Mission Dei)라고 P. Johnstone 은 강조한다. Johnstone 는 계속하기를 동일한 선교의 원리에 근거하여

<sup>14</sup> Scott, James M., *Paul and the Nations*. WUNT 84. (Tübingen: Mohr-Siebeck, 1995), 5f.; Samuel Krauss, *Die Zahl der biblischen Völkertafel*, ZAW19 (1899), 1-14. ; *Ibid.* *Zahl der biblischen Völkertafel*, ZAW 20 (1900), 38-43.

<sup>15</sup> Joach Jeremias, 'aren, *ThWNT, Bd.1, Studienausgabe (unveränd. Nachdr. d. Ausg. 1933-1979)*. . (Hg.) G. Kittel, (Stuttgart: W. Kohlhammer, 1990), 344.

<sup>16</sup> Scott, James M., *Paul and the Nations*. a.a.O., 5f.

<sup>17</sup> Goppelt, Leonhard, *Typos. Die typologische Deutung des Alten Testaments im Neuen*. 1939<sup>1</sup>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9), 140.

<sup>18</sup> *Ibid.*, 120. Nr. 145.

<sup>19</sup> Hans Kasdorf. *Gedanken zum Verständnis der Weltmission*, (eds.) H. Kasdorf/ F. Walldorf, *Werdet meine Zeugen. Weltmission im Horizont von Theologie und Geschichte*. (Neuhausen, Stuttgart: hänsler, 1996), 19-20.; Georg F. Vicedom. *Missio Dei: Einführung in eine Theologie der Mission*. (München: Christian Kaiser, 1960), 14.; 데이비드 보쉬, '세계를 향한 증거, 선교신학적 이해'. 전재옥 옮김 (서울 : 두란노, 1980), 284. 286.; J. Lopéz-Gay. *Trinitarian, Christological and Pneumatological Dimensions of Mission*. *Omnis Terra* 87, 1977. 11. 14-23.

그리스도는 하나님 구속사에 따라 첫 번째 선교사가 되셨으며 그 이후 모든 선교사역들은 그분과 그분의 사역에 기준과 방향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선교의 원리와 모델을 제시하고(요 20:21) 성령은 바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목적이 가능토록 하신다(요 20:21)고 한다.<sup>20</sup>

George W. Peters 는 이와 같은 삼위하나님의 선교관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마태 28:18-20)하신 예수님의 계명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고 덧붙인다.<sup>21</sup>

이상에서 논한 구속사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선교'(Missio Dei) 개념은 WCC 의 1961 년 뉴넬리의 극단적으로 반복음화적이었던 대회와 1968 년 읍살라대회(Uppsala)<sup>22</sup> 그리고 1973 년 '오늘의 구원'을 주제로 했던 방콕대회에서<sup>23</sup> 자신들만의 신학사상에 이념화 된 '하나님선교' (Missio Dei)와는 본질에서 서로 다르다. WCC 1973 방콕대회에서 E. Castro 는 지난날의 선교시대는 끝이 나고 인권투쟁등 새로운 세계선교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강조한바 있다.<sup>24</sup>

## 2. 선교의 목적과 최종단계로써 교회개혁

바울의 선교는 어디에서 끝이 나는가 라는 질문을 할때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여 청중들을 회심으로 인도하는 각 지역에서 선교사역은 교회를 개혁함으로써 일단 끝을 맺는다고 대답 할수 있다. 바울은 믿고 회심한 자들을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보면서 그들을 통해 지역교회를 형성한다(롬 1:5, 12:4f., 15:16, 갈 1:1f., 고전 1:1f., 12:28, 고후 11:28).<sup>25</sup> 그러므로 바울에게서 복음전파 사역은 개개인의 회심만으로는 아직 끝이 나지 않는다. 아울러 회심자들이 세례를 받고 난후 지역교회에 소속이 되도록 했다.<sup>26</sup> 이처럼 바울의 선교는 최종 단계인 교회개혁을 통해서 견고해진다고 할수 있다.<sup>27</sup> Helge Stadelmann 박사 역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바울선교의 원리를 주목하면서 바울의 전도와 교회개혁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사도의 선교사역에 하나로 포함 되어 있다고 강조한다.<sup>28</sup> 이같은 동일한 시각에서 David J. Bosch 는 헤른훗의 선교역사를 거스러 보며 아쉬운 평가를 내린다. Bosch 는 평가하기를 헤른훗의 선교 역사는 개 개인의 회심을 통한 구원 그리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본보기의 교훈을 남겼지만 그런데도 그들에게서 교회개혁과 회심자를 성경으로 양육하는 면에서는 취약했다는 것이다.<sup>29</sup>

또한 교회개혁은 구속사적인 근원에서 볼때 복음을 전하는 각 사도들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사역 프로그램에 따라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인 것이다. 이점에서 Schnabel 박사는 교회개혁은 선교사의 구술적인 기능이나 탁월한 전략이기 전에 그리고 그것 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sup>20</sup> Patrick Johnstone, *The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The unfinished Work of World Evangelisation*, (Great Britain: Christian Focus Pub. /WEC, 1998), 13-22.

<sup>21</sup> George W. Peters. *Missionarisches Handeln und biblischer Auftrag. Evangelikale Theologie*. (Bad-Liebenzell: Verlag der Liebenzeller Mission, 1977), 61.

<sup>22</sup> Peter Beyerhaus, *Humanisierung*, (Bad Liebenzell: Liebenzeller Mission, 1980), 50-51, 60-63 ; Beyerhaus, *Krise und Neuaufbruch der Weltmission*, (Bad Liebenzell: Liebenzeller Mission, 1987), 10-27.

<sup>23</sup> Peter Beyerhaus, *Bangkok ' 73, : Anfang oder Ende der Weltmission ?*, (L Bad Liebenzell: Liebenzeller Mission, 1973), p. 23-25, 115-116.; W. Künneth/Peter Beyerhaus, *Reich Gottes oder Weltgemeinschaft?*, Bad Liebenzell: Liebenzeller Mission, 1975), 17-41.

<sup>24</sup> P. Beyerhaus, *Bangkok ' 73*, a.a.O., 23-25. 115

<sup>25</sup> Helge Stadelmann. *Gemeindebau nach dem Neuen Testament als Ziel der Mission*. (eds) H. Kasdorf/F. Walldorf, *Werdet meine Zeugen*. (Neuhausen, Stuttgart : Hänssler, 1996), 123.

<sup>26</sup> Eckhard J. Schnabel. *Die Urchristliche Mission*, a.a.O., 1311.

<sup>27</sup> Richard Longenecker , *The Ministry and Message of Paul*, (Grand Rapids: Zondervan, 1971), 112.

<sup>28</sup> Ibid., 301ff.

<sup>29</sup> David J. Bosch. a.a.O., 158-160.

정당히 말한다. 그러므로 선교사역의 열매로써 탄생한 교회는 그 소속에서도 사도의 작품이나 소유가 아니며 어떤 개척자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하나님 자신이 소유자로서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축물'(고전 3:9)<sup>30</sup> 인 것이다.<sup>31</sup>

이와 동일한 교회의 근원을 교회 '개척'의 용어 사용에서도 발견 할수 있다. 교회를 '개척'하다에서 '개척하다'의 비유적 용법인 "짓다", "짓기"(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에 이미 그 본질이 내포되고 있다. 이 용어의 개념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한 Ingrid Kitzberger 박사는 사도들의 선교사역의 최종 목적은 개개인의 회심이 아니라 '교회개척'이며 '짓기'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교회라고 강조하는데 이는 결과에서 본 합당한 주장이다.<sup>32</sup>

또 다른 한편으론 예배 장소적인 흔적을 통해서도 바울사도의 선교의 목적을 조명해 볼수 있다. 미국의 선교학자 R. Anderson(1796-1880)은 Neander 와 Mosheim 의 교회사 연구를 토대로 사도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과 예배처소에 관련하여 바울은 그의 사역기간 동안 어느 곳에도 교회를 위한 건물을 짓거나 또는 짓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교회의 모임과 예배는 모두 개인의 가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한다. 교회사 연구에 따르면 3 세기 이전에는 개인의 가정에서 교회적 기능을 한 것 예외는 특별히 교회가 모이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sup>33</sup> 로마에서 발굴된 고고학적인 한가지 사실은 일반적으로 서민들의 주택은 대단히 적었는데 이 적은 두 집의 형태를 변형치않는 가운데 서로의 양벽을 허물어 큰 공간을 만들었던 유물이었다. 고고학자들의 평가로써는 이는 분명히 2 세기 말에서 3 세기 초에 사용된 교회건물 이었다고 본다.<sup>34</sup> 최근 발굴된 동시리아 지역인 Dura-Europos<sup>35</sup> 에서도 역시 3 세기 중반에서야 사용하던 가정 교회가 발견되었다.<sup>36</sup>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는(Suetonius, 69-140) 주후 120 년에 초기 12 명의 "로마의황제" 전기를 쓴 역사 저술 '클라우디우스수생애'에서 로마 사학자들의 기독교인들에 관한 (크레스토스/Christus) 문서적인 악성 유언비어로부터 시작하여 로마제국의 기독교에 대한 제도적 금지령이 있기까지 주후 49 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부터 기독교인 박해가 서서히 로마 제국내에 확산되었다고 기록한다.<sup>37</sup> 그 이후에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제국의 종교였던 황제숭배를 거절할 경우 그들에게는 로마인의 자격이 박탈되었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었다.<sup>38</sup>

그러나 바울의 선교 초기에는 로마제국 내에서 지역적으로는 기독교의 금지와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은 로마제국의 제도적인 기독교인 박해 이전이었다. 그럼으로 어떤 지역에 교회

<sup>30</sup> Eckhardt J. Schnabel. a.a.O., 910. 940.

<sup>31</sup> Wolfgang Schrange. *Der erste Brief an die Korinther*. Bd. 1. EKK. (Zürich: Benziger Verlag, Neukirchen, Vluyn: Neukirchner Verlag, 1991), 295.

<sup>32</sup> Ingrid Kitzberger. *Bau der Gemeinde. Das paulinische Wortfeld oikodomeh/ (evp)oikodomein*, fzb (Forschungen zur Bibel), (Würzburg: Echter, 1986). 53. 282.

<sup>33</sup> Ibid., 59.

<sup>34</sup> Francis A. Schaeffer, *Kirche am Ende des 20. Jahrhunderts*, Haus der Bibel (Genf, Zürich, Basel, Wuppertal: R. Brockhaus Verlag, 1973), 68.

<sup>35</sup> Ulrich Mell. *Christliche Hauskirche und Neues Testament: Die Ikonologie des Baptisteriums von Dura Europos und das Diatessaron Tatians*. Novum Testamentum Et Orbis Antiquus/Studien Zur Umwelt des N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0), 340. Nr. 38-5

<sup>36</sup> Rodney Stark. *Der Aufstieg des Christentums. Neue Erkenntnisse aus soziologischer Sicht*. Übers. von Wolfgang Ferdinand Müller, (Weinheim: Beltz Athenäum, 1997), 13.

<sup>37</sup> F. F. Bruce, *Ausserbiblische Zeugnisse über Jesus und das frühe Christentum*, (Giessen /Basel: Brunnen, 1991), 11-12.

<sup>38</sup> Moreau, Jacques, *Christliche Verfolgung in römischem Reich*, (Berlin: Töpelmann, 1961), 21.

건물을 짓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역사의 흔적은 사도가 교회개척 외에 다른 사역에 더 비중을 두지 않았다는 흔적인 당시 교회의 공동체로 모였던 공간을 통해서도 조명할 수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R. Anderson 은 교회 개척이 바울의 가장 중심적인 선교전략과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하는데<sup>39</sup> 이 역시 설득력 있는 역사적 소견이라 사료된다.

Thomas Schreiner 박사는 Paul Bowers 의 "Fulfilling the Gospel: The Scope of the Pauline Mission" 저술을 참조하면서 교회개척이 바로 바울선교의 목적이었음을 강력히 강조하며<sup>40</sup> 또한 Thomas Schreiner 박사는 T. O'Briens 의 저술인 "*Gospel and Mission*"을 인용하면서 복음은 바울에게 오직 전파만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바울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짓게'하며(고전 3:5-15, 고전 9:7.10.11.), '기초를 쌓게'하며(롬 15:20, 고전 3:10), '생명을 낳게'(고전 4:15; 문 10) 한다고 말한다(고후 11:2).<sup>41</sup> 뿐만아니라 이미 언급한 대로 교회개척은 그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사역이며 아울러 개척과 존재에서 섬세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와 일치하고 있다도 A. Kuen 는 주장하는데<sup>42</sup> 이는 구속사를 통해서 교회개척을 평가하는 통시적 견해라 생각한다.

### 3. 종말적 하나님나라 건설로써 교회개척

신약내에서 '교회'라는 용어가 118 회 사용되며 문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표현까지 합하면 이 보다 훨씬 많다. 교회라는 용어가 사용 될때 여러가지 속성들이 겹쳐서 표현되는데 이 다수의 개념 자체가 교회는 처음 태동부터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소유한 영원성을 일관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시작부터 인간들을 구원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신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유대교와는 달리 새로운 구속사적 견해로써 자신들은 어떤 거룩한 특정그룹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점에서 G. Sautter 는 W. G. Kümmel 의 주장을 지지하며 신약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약교회 자신들은 "종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겨둔 자들이 아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의 유형으로서 이해했다(고전 11: 25)."<sup>43</sup> 그리하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미 시작된 종말적인 구속의 언약 중에 있었고 그들의 삶은 자신들의 종말적인 신앙을 증거하는 삶이 었다.<sup>44</sup>

신약교회가 종말적인 존재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하는 H. Stadelmann 박사는 자신의 하나님나라 견해에 따라서 신약시대 교회는 주님이 이미 도래를 선포하셨던 하나님나라의 실형이었으며, 그러므로 복음서에 비해 서신서에는 "하나님나라" 표기가 비교적 적게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영원성 있는 하나님나라의 측면에서 교회를 정의한 결과라고 할수 있겠다.<sup>45</sup>

<sup>39</sup> Rufus Anderson 은 바울사도의 선교사역에서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사역은 교회개척이었다고 본다.

Rufus Anderson 은 단어 사용에서는 교회 "개척하다" 가 아닌 회심자의 "모임" 으로 표현한다. Cf. Rufus Anderson. *Foreign Missions: Their Relations and Claims*. (Charles Schreiberner: New York, 1869).

<sup>40</sup> Thomas R. Schreiner. *Paul, Apostle of God's Glory in Christ*. IVP, (Illinois. Leicester England: Downers Grove, 2001), 67.

<sup>41</sup> Peter T. O'Brien. *Gospel and Mission in the Writings of Paul: An Exegetical and Theological Analysis*. (Michigan: Grandrapids, 1995), 42; Thomas R. Schreiner. a.a.O., 66.

<sup>42</sup> Alfred Kuen. *Gemeinde nach Gottes Bauplan*. (Wuppertal: Verlag und Schriftenmission der Evangelischen Gesellschaft für Deutschland, 1975).

<sup>43</sup> Gerhard Sautter. *Heilsgeschichte und Mission. Zum Verständnis der Heilsgeschichte in der Missionstheologie*. (Gießen: Brunnen: 1985), 49.

<sup>44</sup> Ibid.

<sup>45</sup> Helge Stadelmann, *Gemeindebau nach dem Neuen Testament als Ziel der Mission*, a. a. O., 122-123; Thomas R. Schreiner, a.a.O., 66.

이점에서 Tom Wright 은 주장하기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이해에 있어서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들이 생각 해온 것처럼 오직 개인의 구원을 중심에 두지않고 모든 정치 사회적인 분야에서 복합적인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다.<sup>46</sup> 아울러 Tom Wright 는 강조하기를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인 구속사의 전체적인 차원과 수평에서 바라보았다고 함으로써 복음의 종말적 하나님나라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sup>47</sup> 교회는 하나님 역사의 구심점으로써 (a storm center) 현재적 세상을 향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며<sup>48</sup> 또한 지역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바탕위에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하여 우주적 교회와 서로 연결이 되어있으며, 그리스도를 머리로하며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써<sup>49</sup> 본질상 영원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David J. Hesselgrave 의 주장은 교회가 지닌 하나님 나라의 연원성과 일치하는 견해라고 판단된다.<sup>50</sup>

교회의 신비: 교회의 구성원되는 사람은 여러모로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나라의 법적인 지위와 권세에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지혜로 채워진 예수님의 몸이되신 공동체이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근본임을 다음의 성경말씀이 잘 선포하고 있다:

### 에베소서 1 장 17-23 절(개혁개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니라.

### 골로새서 2 장 6-10 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sup>46</sup> Tom Wright, *Warum es Paulus wirklich ging*, (Gießen: Brunnen, 2010), 47-48.

<sup>47</sup> Ibid., 9-75.

<sup>48</sup> David J. Hesselgrave, *Planting Churches Cross-Culturally, A Guide for Home and Foreign Missions*, 7. Aufl. (Michigan: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1989), 19-20.

<sup>49</sup> Ibid., 20-22.

<sup>50</sup> Ibid., 22.